

현대인의 행복을 찾아서

- 『노자』와 『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인간론적 이해와 성경적 관점의 제안 -

김수진(신한대)

요약

현대인의 불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 논문은 자신이 대면하는 시대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하여 인위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생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무욕(無欲)의 삶을 사는 진정한 강자’, ‘생명의 주체가 되어 누리는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공통적 대안을 제시한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두 철학자, 노자와 슬로터다이크의 주저 『노자』와 『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문제적 인간’과 ‘대안적 인간’을 고찰한 후, 두 철학자의 ‘대안적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움에 대해 반문하고, 최종적으로 현대인의 행복을 찾기 위한 성경적 관점의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유위난치(有爲難治), 냉소주의, 무위자연, 견유주의, 죄 인식, 죄 인정, 속죄, 행복

I. 서론

인류의 역사는 각 시대를 주도하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특징에 따라 특정한 철학을 발생시키고 또 그 철학을 반영하며 발전해왔으며, 각 시대의 철학은 이러한 인간 역사와의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당대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며 시대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삶의 방향 제시라는 보편 학문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인류의 역사와 철학의 관계가 증명하듯 현실과 분리된 철학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적 사유는 인간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철학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한계를 극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대가 반영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저명한 철학자들의 저서가 끊임없이 읽히고 연구되는 것 또한 각자 자신이 사는 시점과 장소에서,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인류의 이러한 끊임없는 철학적 노력은 이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는 큰 흐름에 이르렀다.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정의, 평등, 자유를 외치는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의 인간 존재보다 더욱 행복해졌는가? 그렇다면 물질만능주의, 극도의 경쟁 체제, 탈도덕화 속에 상승하는 자살률과 각종 사회범죄율은 무엇 때문인가? 프랜시스 웨퍼는 오늘날 사회 병리 현상의 핵심 원인을 상대적 진리관으로 파악하고,¹⁾ 신지영은 설득력 있는 논변으로 자리잡아 악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공격과 비판이 어려운 공리주의, 자유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현대 사회의 교묘한 비극을 지적하기도 한다.²⁾ 이런 종합적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본 논문은 자신이 대면한 시대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하나의 절대화 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생명의 위험성을 반영하는 문제적 인간과 그로부터의 해방이 주는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대안적 인간을 제시한 노자와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인간론적 이해를 두 권의 주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두 대안적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움에 대한 반문을 통해 최종적

1) 프랜시스 웨퍼: 『이성에서의 도피』, 김영재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9.

2) 신지영: “새로운 이성에 대한 현대적 탐구의 여정들-냉소적 이성비판과 횡단이성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이성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12, 23(3), pp.226-231.

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인의 행복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노자』와 『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인간론적 이해

본 장에서는 고대의 무도(無道) 시대, 현대의 냉소 시대, 각각의 시대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지평에서 진정한 인간 존재 구현을 시도하는 두 철학자의 저서 『노자』와 『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중심 개념을 인간론의 각도에서 비교·종합하여 고찰한다.

1. 문제적 인간: 유위난치(有爲難治), 냉소주의

- 인위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생명의 위험성

“以虚无为本, 以因循为用”, 『사기·태사공자서(史記·太史公自序)』에 기록된 유동적인 근본을 지향하는 도가 사상에 대한 개괄적 묘사이다.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는 예악(禮樂)이 모두 무너져 실체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생긴 시대에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절대적·본질적 근본이 되어 세계를 통제할 뿐 아니라 인간 생명의 주재자가 되어 인간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게 한 명분과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유위(有爲) 질서의 실패를 선언한다. 노자가 진단하는 문제적 인간은 ‘유위난치’(有爲難治), 유위적 권력자와 자신의 본 모습을 상실하여 통치가 어려워진 백성들이다.

『노자』 사상 체계의 핵심인 도(道)는 세계의 근본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34장“大道汎兮, 其可左右”, 42장“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³⁾ 그리고 도로부터 생성된 세계의 처음,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규정은 모든 사고의 기준점이 된다. 노자가 묘사하는 세계의 처음은 명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무명(無名)의 세계이며(1장“无名天地之始, 有名万物之母”), 인간은 본래 소박의 덕(素朴之德)을 가진 존재이다(28장“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復歸於樸”).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쟁과 문제들은 ‘무명’이라는 세계의 처음 모습에 대한 무지함과, ‘소박의 덕’이라는 인간 본래 모습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인간이 세계의 처음에 대해 무지하고 본래적 모습을 상실한 주된 원인은 유가의 유위(有爲) 질서, 권력자의 권력 행사 대상에 대한 강제적·인위적·지배적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노자』 18장, 유위 질서의 근간이 되는 인과 의, 효도와 자애로움, 바른 신하는 모두 진정한 도가 버려진 후에 발생한 것들로 세계의 근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도를 아는 자는 ‘인의예지’ 지식에 박식하지 않고, ‘인의예지’ 지식에 해박한 자는 진정한 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81장“知者不博, 博者不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위적 권력자는 스스로 드러내어 옳음을 주장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지만, 실제로는 명철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못하고, 공이 없고, 오래 가지 못한다(24장“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 유위의 결과는 실패와 상실뿐이다(64장“爲者敗之, 執者失之”). 권력자가 엄격하게 살필수록 백성은 부족하게 된다(58장“其政察察, 其民缺缺”). 『노자』 57장은 유위의 폐해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즉 천하에 금기가 많을수록, 이롭게 하는 도구가 많을수록, 기교가 많을수록, 법령이 더욱 두드러질수록,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백성은 더욱 빈곤하게 되고, 기이한 물건들이 더욱더 생겨나고 도적이 많아진다는 것이다(“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워진 것은 권력자의 유위 때문

3) 『노자』 원문은 王弼 著, 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北京: 中華書局, 2009)에서 인용하며 이하에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음.

4) 이임찬: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樸”과 “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2015, 76, p.8 참조.

이며, 백성이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권력자가 자신의 삶의 두터움을 구함으로 기인한 것이다(75장 “民之難治，以其上之有爲，是以難治。民之輕死，以其求生之厚，是以輕死”).

동일성과 전체주의적 사고의 폐해를 경험한 슬로터다이크 또한 보편주의적 형이상학과 목적론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슬로터다이크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래 철학은 “각성(覺性)의 방향”으로 흘러왔고,⁵⁾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계몽이성의 휴머니즘적 탈야수화, 문자를 통한 교육과 인간성 길들이기는 실패하였고, 그 필연적 결과로 1960년대 이후 현대 사회는 문화적 불쾌감과 우울하고 무기력한 냉소주의가 대중적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⁶⁾ “현대의 냉소주의자는 사회에 통합된 반사회적 일탈자”로 “자신의 생존 방식이 사악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준을 낮춘 집단적 관점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p.46) 통합된 냉소주의는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고 그런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 이해심을 보인다.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특질로 자리 잡은 “문화 속의 불쾌감”은 보편적이고 불명료한 냉소주의로 나타나고, 현대인은 안도감과 비참함을 동시에 느끼는 ‘계몽된 허위의식’, ‘현대화한 불행한 의식’ 속에서 그 어떤 진리에도 동조하지 않고 비웃을 뿐이다(p.43, 47).

슬로터다이크는 스스로를 빛, 조명이라 부르는 계몽이 가한 8가지 반성과 비판 작업을 폭로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허위의 근거는 “오류”와 “악의”, 주요 원리는 자기 한계 설정, 첫 번째 인상을 극복한 두 번째 시선의 발견이다(p.64). 진리라 주장되는 것들은 계몽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의해 기만이 되고, 이로써 의혹과 기만은 세련된 지식을 수단 삼아 교활한 방식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특히 계몽은 “미신, 오류, 무지”, 그리고 “지배 지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지만 전통, 편견, 지배 세력 등의 적대 권력의 저항에 의해 꺾인다. 계몽은 시간과 지성의 굴절, 상이한 정당과 영역에 의해 “파손”을 당하며, 정치적 냉소주의에 의해 최대의 패배를 경험한다. 계몽주의자들은 새로운 진리가 지배하는 이성적 사회 건설을 주장한 “메타 냉소주의자, 즉 역설의 대가이고 풍자의 대가”일 뿐이다(p.88).

계몽이성이 약속한 미래의 실현은 불가능해지고 현대인은 단명할 것이 분명한 어떠한 새로운 가치도 믿지 않는다. “냉소적인 사람은 상대가 -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더 나아가 사회이든 - 진리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탄하는 대신, 그 배후에 있을 어리석음, 모순, 이념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비웃으며 폭로한다.”⁷⁾ “긍정적인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고, 무의식적인 회의에게 토대를 침식당하고, 가시적으로 파손된 형태의 의식이 지배하게 된다.”(p.239) 결국 앞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 현대인의 지식과 삶, 철학과 삶은 분리되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현대인은 도덕적·심리적 측면의 냉소적인 태도로 “수평적 이상화”를 추구하면서 타자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2. 대안적 인간: 무위자연(無爲自然), 견유주의

- ‘무욕(無欲)의 삶을 사는 진정한 강자’, ‘생명의 주체가 되어 누리는 자유로운 인생’

노자가 당시 유위 질서의 실패로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 본래 인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창한 대안은 무위의 유익함, 그리고 무위의 결과인 자연(自然)이다. 무위적 권력의 모범이 되는 도(道)는 드러나지 않고 이름이 없으며 오직 베풀기에 능하고 만

5) 페터 슬로터다이크: 『플라톤에서 푸코까지』, 김광명 옮김, 서울: 세창미디어, 2012, p.38.

6) 페터 슬로터다이크, 『냉소적 이성 비판』, 이진우·박미애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5, p.20.
이하 인용문은 본문에 페이지만 표시함.

7) 오영주: “포스트휴먼을 꿈꾸는 냉소주의”. 『외국문학연구』, 2015, 58, p.81.

물을 이루어준다(41장“道隱無名，夫唯道，善貸且成”). 여기서 ‘베품’과 ‘이름’은 강제적인 조소가 아닌 구현을 위한 도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의 덕을 현덕(玄德)이라 일컫는데, 현덕은 만물을 생겨나게 하지만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만물에 대해 공이 있으나 의존하지 않고, 자라도록 도우면서 주재(主宰)하지 않는 덕이다(10장“生而不有，爲而不恃，長而不幸，是謂玄德”). 현덕은 곧 순응하고 금(禁)하지 않는 유약(柔弱)한 덕으로, 유약함은 도의 핵심적인 운용 방식이다(40장“弱者，道之用”). 유약함은 강직함을 이기며(36장“柔弱勝剛強”), 지극한 유약함은 최상의 덕(上德)이다. 무위 질서는 도의 현덕, 유약의 덕을 실현하는 질서로, 사사로움과 강제력을 배제한 수렴적·절제적 권력 사용 태도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권력 행사 대상에게 강압적으로 관철시키지 않는다(3장“虛其心”，“弱其志”).⁸⁾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49장“聖人無常心，以百姓心爲心”). 이를 위해, 사사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한 권력욕, 권력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구멍과 문을 닫고(52장“塞其兌，閉其門”), 욕심을 지속적으로 감하여(48장“損之又損”) 무욕(無欲), 사사로운 마음이 배제된 무심(無心)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곧 관용과 절제로 표현되는 지극한 유약함의 상태로(至柔), 무위의 덕, 유약함의 덕을 가진 자는 만인을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고(8장“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 자신을 이기는 자,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는 진정한 강자가 된다(33장“自勝者強”).

권력자의 무위의 결과는 권력 사용 대상의 스스로의 변화(37장“道常無爲而無不爲，侯王若能守之，萬物將自化”), 곧 백성의 “자연”(自然)이다(17장“功成事遂，百姓皆謂自然”). 권력자가 무위하면, 즉, 마음을 단속하여 현명함을 중시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은 자연, 즉 다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3장“不尚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不見可欲，使心不亂”). 따라서 권력자는 후에 발생한 성인과 지혜, 인과 의, 영민한 기교와 이로움을 버리고(19장“絕聖棄智”，“絕仁棄義”，“絕巧棄利”), 그것들에 대한 말을 아끼는 무위의 태도를 취할 때(2장“行不言之教”，23장“希言”), 백성은 스스로 교화되고 스스로 바르게 되고 스스로 부하게 되고 스스로 소박의 덕이라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57장“故聖人云，我無爲而民自化，我好靜而民自正，我無事而民自富，我無欲而民自樸”). 권력자의 무위, 무욕의 결과로 백성 개개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스스로 주인이 되고(自主), 스스로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自治). 권력자의 무위, 백성의 자연이 실현되는 것은 곧 두 주체가 모두 소박의 덕을 지닌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19장“見素抱樸”，16장“归根”，“復命”).

한편, 슬로터다이크는 현대 인간에게 대중적 유형으로 발생한 냉소성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사회의 관습, 윤리와 도덕, 제도를 거부하며 본성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생활로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주인”의 삶을 살았던 고대 견유주의(변증법적 물질주의/실존주의)에서 찾는다.⁹⁾ 『냉소적 이성 비판』에는 견유주의 충동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인상학적 영역의 “일상적인 것”, “하찮은 것”들이 소개되고, “냉소적 의식의 원형적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 실존적·문학적 인물들이 소개된다. 특히 고대 견유주의, “풍자적 저항 전통의 시조”인 디오게네스는 “진리를 말할 만큼 공격적이고 자유로운(‘염치없는’), “기지와 재치, 방심하지 않는 민첩성, 삶에 대한 독립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로, “비플라톤 식 대화의 길을 개진”하여 이상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 해방적 행복을 추구하는 대표

8) 王博：“权力的自我节制：对老子哲学的一种解读” 哲学研究，2010(6)，45-55.

9) 슬로터다이크의 저서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파주: 한길사, 2004, pp.39-81)에서는 새로운 인간형 창조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생명공학, 유전공학의 활용-유전학적 선별과 사육-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공학과 관련한 논의는 생략한다.

적 인물이다(p.205, 292). 디오게네스의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하고 도발적인 행동, 동물적인 자기표현 방식은 실존의 비(非)분열, 즉, “행복, 욕망, 지성의 원초적 결합”을 실현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p.295).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가르침을 “복잡한 교양인의 언어로 치장”하지 않으며,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가지지 않고 “실존의 모험을 의식적으로 유쾌하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궁극적 지혜로 전한다(p.297, 300). 그는 몸과 감각을 통한 자기 확신, 자신만만함에 근거한 건방짐과 몰염치,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행동과 삶 자체로 지식과 권력에 저항한다. 그에게 육체는 고유의 논증 방식으로, 눈은 “아테네인들의 부풀린 이상주의와 문화적 오만을 꿰뚫어”보고, 입은 “고소해 하는 ‘아니오’”를 외치며,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큰 소리의 기탄 없는 흥소를 터뜨린다(p.218, 268, pp.271-273). 슬로터다이크는 디오게네스의 몸의 철학을 소개함으로 이성이 비대해진 계몽에 반대하여 인간, 동물, 자연, 기계 등 상호 구별되고 분리된 요소들의 통합을 추구한다.

“염려”와 “자기 억제”, 도덕주의와 부정의 그림자인 “경악”은 삶의 감정을 암울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행복 모티프를 잠식하는 주원인으로, 행복한 인간 존재는 이를 극복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를 소유해야 한다(pp.244-246). 디오게네스와 같이 “당당하고 익살스러운 생철학자”로서, “욕구의 억압에서 자유로운 무욕”의 삶을 사는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강자”가 되어야 한다(p.301).¹⁰⁾ 냉소주의에 잠식되어 우울한 현대인이 진정한 강자가 되고 생기를 찾아 스스로의 생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견유적 충동은 바로 ‘뻔뻔함’이다. 디오게네스는 이상주의 사유의 정신분열증적 무미건조함을 “자신의 삶으로 반대”하여 일종의 철학적 무언극으로 진리를 설파하고, 우울증이 완전히 배제된 자기 확신 속에서 “금욕적이고 흠 없는 삶으로 뻔뻔함을 뒷받침”한다(pp.207-208). “뻔뻔함”은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실존적인 태연자약의 원칙”으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하는”, “활력의 비밀”이 들어있는 “자신이 사는 그대로”를 말하는 삶의 방법과 태도라 할 수 있다.

Ⅲ. 두 대안적 인간에 대한 반문과 성경적 관점의 제안

1. 무위자연적 인간, 견유주의적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운가?

노자와 슬로터다이크는 각각 유가질서와 계몽이성의 적시성과 실효성 부재가 야기한 문제적 인간의 모습을 진단하고 무위자연과 견유주의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은 우리에게 공존하는 세계에 대해 인식시키고, 현실적으로 명분화된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명분의 허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심적 자유함과 안위를 통한 생명 해방을 시도한다. 슬로터다이크 또한 『냉소적 이성 비판』에서 계몽의 필연적 귀결로 냉소주의를 분석하지만 연구의 최종적 목표는 고대 견유주의 디오게네스의 뻔뻔함을 통해 “환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정초(定礎)”하는 것임을 밝혔다(p.36). 노자와 슬로터다이크는 공통적으로 보편화·절대화 된 효력을 다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 생명과 삶 자체를 사랑하며 욕심의 자아 절제를 통해 자기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유와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회복하기를 꿈꾸었다. 결국, 두 철학자는 인간의 자율적인 삶을 속박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대한 해방을 통한 인간 행복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10) 페터 슬로터다이크: 『세계의 밀착』, 한정선 외 편집 및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7, pp.246-247.

인간은 필연적으로 직면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갖가지 부자유함 속에서 궁극적·절대적 가치로부터의 해방, 계몽이성으로부터의 해방, 신으로부터의 해방 등 끊임없이 해방을 갈구해왔다. 고찰을 마친 필자는 현실적·실천적 각도에서, “무위자연적 인간, 견유주의적 인간이 참으로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는 과연 인간이 해방되기를 열망했던 것들로부터의 해방이,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달음질의 포기가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는지 반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로부터 꽤나 벗어난 듯하나 실상은 해방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닌 그것에 대한 방관, 방임, 방치로 인한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가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인간 존재는 절제가 요구되는 최고의 가치를 향한 성장의 개념을 제거하고,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며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¹¹⁾ 이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 추구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좌절감을 넘어서는 상실감을 견뎌야 하며, 내외적 원인으로 포기되지 않는 가치들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피폐해지고 종국에는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무의미, 무가치의 고통 가운데 자아 상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갖가지 병리 현상은 이러한 감출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이 절정에 달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성경적 관점의 제안

노자와 슬로터다이크는 유위질서와 계몽이성의 실패를 지적하였다. 그것은 과연 유위질서와 계몽이성 자체의 문제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위질서로 교화되지 않고 계몽이성으로 교육되지 않은 인간의 문제였는가? 필자는 유위질서와 계몽이성의 실패의 근본 원인을 인간 내면의 탐심과 교만으로 파악한다. 아담 이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역사,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역사라 할 수 있고(창3:9, 눅19:10), 탐욕과 교만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도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편이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심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둘째, 교만으로 진리와 절대적 선과 의를 거부하고 상대적·허상적·회상적 의에 안주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을 찬양하며 신으로부터 도피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는 회개 촉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레위기 4장 13-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함으로 속죄제를 드려 사함을 받음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죄 인식, 죄 인정, 속죄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인은 죄 인식, 죄 인정, 속죄를 바탕으로 탐심과 교만에 대한 두려움(잠16:18), 내면이 깨짐에 대한 두려움(잠4:23)이 있어야 하며,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음에서 오는 삶 자체에 대한 감사함(욥1:21),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롬8:1-2),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한다(고후5:10). 거룩함과 위의 것을 추구하며(레19:2, 골3:1),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신6:5), 시비와 선악을 끊임없이 구분하고(신6:6-9),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마5:6), 자신이 믿는 진리와의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하고, 또 그 진리에 충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애통하는지 반문해야 한다.

인류 역사는 오늘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왔다. 그리고 사회는 영원한 시각을 가진 사람의 혜택으로 유지되어 감을 부정할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마16:24). 나를 통제함으로 내가 손해를 입으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가는 길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후12:10, 빌3:12).

11) 이현지: “노장사상과 ‘잘 사는 삶’”, 『사회사상과 문화』, 2015, 18(1), pp.4-8 참고.

IV. 결 론

노자와 슬로터다이크는 모두 인위적인 보편주의 가치에 인간을 일률적으로 길들이는 정치 혹은 지식 권력 구조를 비판하며 유위난치(有爲難治)와 냉소주의라는 문제적 인간의 특징을 제시한다. 그 대안으로 노자는 무위자연, 슬로터다이크는 디오게네스로 대표되는 견유주의를 제안하였다. 두 대안적 인간은 모두 '무욕(無欲)의 삶을 사는 진정한 강자', '생명의 주체가 되어 누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지향한다. 이러한 비교·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필자는 두 대안적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움에 대해 반문하고 죄 인식, 죄 인정, 속죄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인의 불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현대인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본 연구는 현대인에게 행복을 찾기 위한 실제적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동서양 철학자들의 사명감을 일깨워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공간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